


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) 보도자료

<http://www.gist.ac.kr>

보도시점

배포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.

배포일

2020.10.08.(목)

보도자료

홍보팀 김효정 팀장

062-715-2061

담당

홍보팀 이나영 선임행정원

062-715-2062

자료 문의

AI대학원 안창욱 교수

062-715-2661

신인가수 하연, 시와 협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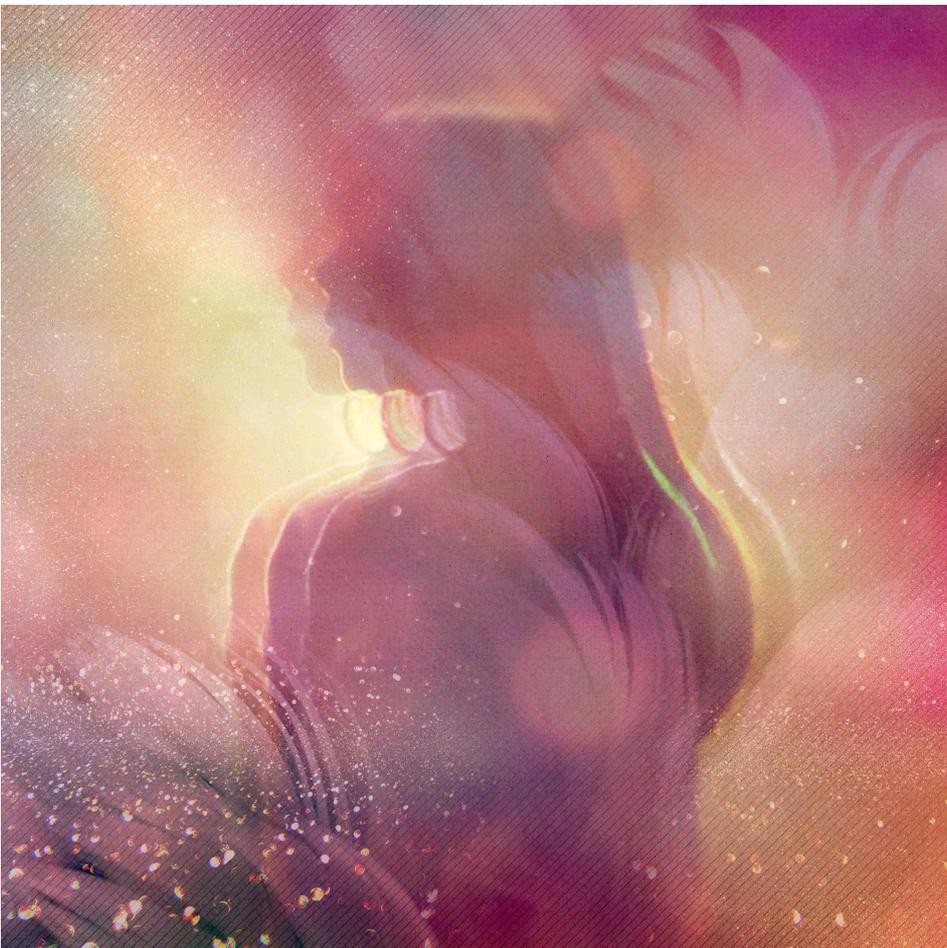
- 신인가수 하연 데뷔, 인공지능 작곡가도 도와

- 신인가수 하연은 지난 7일 오후 12시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데뷔 싱글 ‘아이즈 온 유(Eyes on you)’ 를 발매하고 가요계에 정식 데뷔했다.
 - 이번 앨범은 (주)엔터아츠(대표 박찬재)가 지스트로부터 AI작곡 기술을 이전받아 총괄 제작했으며, 이는 연구기관의 기술이 실제 상용화까지 이어진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.
- 하연의 데뷔 싱글 발매 곡은 인공지능이 1차 작·편곡한 곡을 사람 편곡자가 재차 멜로디와 리듬을 차용하여 곡을 만들었고, 하연이 직접 작사에 참여하여 노래를 불러 탄생했다.
 - 하연은 이번 디지털 싱글 발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말 후속곡을 선보일 예정이다.
- AI작곡가를 개발한 지스트의 안창욱 교수는 “아직까지는 인간 뮤지션을 도와주는 수준이지만 AI작곡가와 협업을 원하는 음악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 신호” 라고 밝혔다.
 - 세계 최초 인공지능음악 레이블 A.I.M을 설립한 엔터아츠 박찬재 대표는

“그동안 AI가 작곡한 8개의 음원을 선보였으며,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인공지능을 통한 음악 작업을 할 계획이다” 면서, “AI작곡가와 인간작곡가와의 협업은 음악에 생명을 불어넣는 또 다른 창작의 영역” 이라고 말했다.

- 한편 안창욱 교수는 음악이론에 진화연산과 딥러닝 등 AI기술을 접목해 국내 최초 AI작곡가 EvoM(이봄)을 개발하여 유튜브 채널 ‘뮤지아 (Musia)’ 를 통해 무료로 AI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 안 교수는 음악과 미술 등 문화 영역 전반에 걸쳐 AI를 접목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. <끝>

[사진 설명]



▲ 하연_이미지컷